

기억, 기록, 아카이브 정의(正義)*

Memory, Records and Archival Justice

장대환(Jang, Dae Hwan)** · 김익한(Kim, Ik Han)***

1. 머리말
 - 1) 연구 배경과 목적
 - 2) 선행연구 검토
 - 3) 연구 방법
2. 기록과 기억
 - 1) 증거와 재현의 기록
 - 2) 기억과 해석의 기록
3. 기록관리(recordkeeping)
 - 1) 기록관리 정의의 재고(再考)
 - 2) 기억 담론의 영향에 따른 기록관리의 역할
4. 아카이브 정의(archival justice)
 - 1) 사회정의와 아카이브 정의
 - 2) 아카이브 정의의 실현
5. 맺음말

* 본 연구는 장대환의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기록관리전공 석사(daamable@gmail.com) (제1저자).

***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ikhan@mju.ac.kr) (교신저자).

■ 투고일 : 2018년 12월 31일 ■ 최초심사일 : 2019년 1월 3일 ■ 게재확정일 : 2019년 1월 18일

〈초록〉

‘기억 담론’은 기록학계의 패러다임 변화의 흐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기억은 재현가능성을 전제로 삼았던 ‘증거로서의 기록’의 한계를 지적하고, 기록을 기억을 포착하여 무한히 해석 가능한 매개체로 다시 정의한다. 이제 기록관리는 ‘보이는’ 기록과 ‘보이지 않는’ 기억 사이에서, ‘세계를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를 넘어 ‘어떤 세계를 기억할 것인가’라는 새로운 질문을 부여받는다. 그리고 기억이 가진 개인성과 현재성, 일상성의 힘은 기억과 기록의 관리 그 자체가 사회 정의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연결된다. 이 글은 서구의 기억 담론 지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재구성하여 기억의 사회 정의적 가능성에 대해 살펴본다.

주제어 : 기억 담론, 기억, 기록, 증거, 재현, 해석, 기록관리, 아카이브 정의

〈Abstract〉

‘Memory discourse’ takes an important role in the paradigm shift of archival science. Memory points to the limitation of ‘records as evidence’ that had been assumed to be representable and redefines the record as an infinite interpretable medium by captured memory. Now, recordkeeping are given a new question as ‘what world to remember’ beyond ‘how to remember the world’ between ‘visible’ records and ‘invisible’ memories. And, the power of memory’s personal, present, and everyday aspect is linked to the argument that the keeping of memory and records itself can take a social justice role. In this article, we examine the western archival science’s memory discourse landscape comprehensively and reconstruct it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memories’ social justice or archival justice.

Keywords : record discourse, memory, records, evidence, representation, interpretation, recordkeeping, archival justice

“우리가, 즉 당신이 모든 기록을 지배하고, 모든 기억을 지배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과거를 지배하는 것이 되겠군. 그렇지 않나?”
“하지만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걸 어떻게 정지시킬 수 있습니까?
(…) 기억을 어떻게 지배하겠습니까? 결국 당신들은 내 기억을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Orwell(1949/2003, 346), 『1984』 중에서

1. 머리말

1) 연구 배경과 목적

최근 국내 기록학계에서는 공동체, 일상, 실천주의(activism), 기억 등의 용어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이는 공공 영역의 기록 관리에 중점을 두었던 기록학계의 연구와 실천이, 시민-민간 분야로 영역적, 이론적 확장을 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양상은 이미 주제적으로 공공(公共)을 넘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서구 기록학계의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McKemmish & Gilliland(2013, 80-84)는 서구의 기록학 연구 흐름을 1990년대를 기점으로 구분한 바 있다. 이들에 따르면, 1990년대까지 기록학 담론은 관료체계 아래에서 발생한 사회적 증거로서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생산, 보존하고 이를 접근 가능하도록 만드는 ‘제도로서의 아카이브(archive as an institution)’에 초점을 두었다. 이때까지 발표된 상당수의 연구는 아카이브의 모범 실무, 관리방법과 기술(technology) 구현에 집중되어 있었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기록학계는 지역과 국가, 조직과 기관, 문화와 학문의 경계를 넘어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아카이브의 가능성을 탐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영역의 확장 과정에서 기록학계의 논의는 인문, 예술, 사회과학에서부터 시스템 분석 및

설계는 물론 사회 정의적 참여주의로까지 넓어지고 있다.¹⁾ 이렇듯 기록학이 학문적, 실천적으로 그 영역을 확장하는 것은, 권력의 도구를 넘어 '시민의 일상적 삶의 도구로 이용되는 아카이브'라는 시대적 요구에 응답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김익한 2018, 179-185).

이 글은 '시민을 위한 아카이브'라는, 아카이브에 대한 새로운 정의(定義)를 시도하는 차원에서 '기억(memory)'이라는 주제를 다룬다. 기억은 기록학에서 심심치 않게 언급되어 왔지만, '기억이 곧 기록'이라거나, '아카이브는 기억의 집'(Wallot 1991, 282)이라는 정도의 언술 이상으로 논의되지는 못하였다. 기록되지 않은 기억들이 수도 없이 존재하는 한, 이러한 단순한 언술로는 기억이 아카이브에 대해 갖는 다양한 함의를 담아낼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이 글에서는 기억과 기억 담론(memory discourse)이라는 시각에서 기록, 기록관리(recordkeeping)²⁾의 개념을 좀 더 세밀하게 재검토해보려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아카이브의 사회 정의적 역할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검토

기억 담론에 대한 논의는 1970년대 이후 역사학계에서 등장했다. 홀로코

1) 이러한 기록학계의 학제적 연구 및 실천의 상황을 다수 연구자들은 '아카이브의 다중세계(archival multiverse)'라고 표현하고 있다(AERI & PACG 2011; McKemmish & Piggott 2013; Gilliland 2017).

2) 이 글에서 '기록관리'는 'recordkeeping'의 대역어로서 사용한다. recordkeeping은 사전적으로 행정적·계획적·법적·재정적 요구와 책임을 위한 기록의 체계적 생산·이용·유지·처분을 뜻한다(Pearce-moses 2005, 331). 우리말에서 같은 말로 번역되는 'record management'가 조직 체계의 업무 지원을 위해, 기록의 생산과 처분 등 효과적 관리에 관한 단계적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처리 과정에서 도출된 결과가 예상과 다르지 않도록 하는 차원의 관리를 강조한다면, recordkeeping은 기록관리의 관심을 '무엇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지'와 같은 기록 생산 이전 단계와 기록 생산 이후 활용가능성 등으로 넓혀, 보다 연속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성격이 있다(이승억 2001, 32; Gilliland 2017, 32).

스트 이후의 근대성에 대한 회의, 68혁명의 좌초와 이에 따른 정치, 사회적 격변 등의 상황을 기존의 거대 서사 중심의 역사가학이 설명하지 못하면서, 이에 따른 반작용으로 미시사, 구술사 등 새로운 방식으로 역사를 서술하고자 하는 다양한 논의가 등장했다.

‘집단기억(collective memory)’에 대한 논의도 이러한 맥락에서 부상했다. 이 개념은 1925년 Halbwachs에 의해 최초로 제기되었으나, 본격적인 담론으로서 전개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이후이다. 기억은 개인에 의해 수행되지만, 개인은 사회구성원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 기억 행위는 사회적 틀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이라는 것이다(김영범 1999, 572-583; 남미숙 2017, 8-9). 한편 Assmann은 집단기억 논의의 연장선에서 ‘문화적 기억’이라는 개념을 통해 집단기억이 공동체 내에서 일정한 의미를 획득하면서 집단정체성의 형성으로 귀결되는 과정을 논의했다(남미숙 2017, 9-10).

서구 기록학계의 기억 담론은 이러한 집단기억 개념을 받아들이면서 등장했다. Jacobson, Punzalan & Hedstrom(2013)은 서구 기록학계의 기억 담론 논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들은 기록학계의 학제 간 연구의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영미권 기록학계에서의 집단기억(또는 사회적 기억(social memory))에 관한 연구의 인용 분석(citation analysis)을 통해, 기억담론에 관한 기록학계 내외의 연구 흐름을 추적했다.³⁾

이들에 따르면, 서구권 기록학계의 기억 담론은 크게 세 가지의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집단기억을 집단정체성을 구현하는 촉매제로 보고 이를 수행할 기관으로서의 아카이브를 ‘문화유산(heritage)’으로 정의하는 논의다. Taylor(1982; 1995), O’Toole(1993) 등은 아카이브가 공동체의 공

3) 이들이 기록학계의 학제적 연구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집단기억’이라는 주제를 선택한 것은, 집단기억 논의가 기록학계는 물론 역사학, 심리학, 커뮤니케이션학, 심지어 뇌과학 영역에서도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단기억 연구에 대한 타 학계 연구의 인용 및 피인용 상황을 추적하면, 기록학계의 연구가 타 학계 연구와 서로 얼마만큼 영향을 주고받는지 파악할 수 있다. 이들의 결론은 기록학계가 집단기억에 관한 연구에 있어 타 학계와 연구 교류가 거의 없고, 학계 내에서만 상호 참조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었다(Jacobson, Punzalan & Hedstrom 2013).

통 과거에 대한 기억과 증거를 담보하여 과거와 소통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집단정체성을 느끼게 해주는 문화유산이라고 보았다. 이에 아카이비스트들은 아카이브가 박물관, 도서관 등 여타 '기억 수집기관'과 협력하여 문화유산 컬렉션을 강화할 수 있는 공공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Taylor 1995). Cook(1997)은 아카이브가 공공기억을 포함하거나 배제하면서 공적 서사의 구성과 협상을 통해 공공기억을 재구성하는 공간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논의는 기존 제도 아카이브에 사회적 기억의 보존과 유지라는 역할만을 추가로 부여하여 아카이브를 사회의 기억기관으로 설정하는 맥락이다.

둘째, 집단기억 개념을 바탕으로 기록, 아카이브와 기억 간의 관계에 대한 기존 정의를 의심하고 재구성하는 논의다. 이는 위 논지가 기록과 기억의 의미에 대한 성찰적 숙고 없이 마치 아카이브가 기록을 관리하듯 사회적 기억 또한 유지·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에서 나왔다고 지적한다. 이 논의의 배경인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에서는, 인식하는 주체에 외재하는 객관적 실체의 존재를 부정하고 실재의 의미는 이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언어나 텍스트가 임의로 재구성되면서 만들어진다고 본다(이승억 2013, 195-196). 즉, 기존 기록관리가 전제하는 객관적 실재로서의 기록과 개인과 사회에 의해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기억과의 본질적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Hedstrom(2010)은 아카이브가 과거에 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전통적 신념을 비판하면서, 아카이브가 곧바로 기억으로 등치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Harris(1997; 2002)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⁴⁾ 이후 기록관리의 경험을 토대로, 기록은 과거 사건

4)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2차대전 이후 보어(boer)계 백인 국민당정권에 의해 수립된 백인 우위의 인종차별정책을 말한다. 아프리칸스어(afrikaans)로 '격리' 또는 '분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21세기 정치학대사전. 2018. 검색일자 : 2018.12.30.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728503&cid=42140&categoryId=42140>

의 완전한 서사가 아닌 사건의 ‘조각’에 불과하며 아카이브의 기록 역시 과거의 객관적 실체가 아닌 상황의 부분적 진실만을 담고 있다고 하면서, ‘객관적인 기록’이라는 신화를 넘어선 기억과 기록 관계의 재구성을 주문했다. 이제 기록은 기억 그 자체가 아니라, 기억과 과거 사건의 회상을 유발(trigger)하는 시금석(touchstone)이거나(Millar 2006) 또는 이용자가 과거를 해석하는 공간, 즉 인터페이스(interface)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Hedstrom 2002).

기록을 객관적 증거가 아니라 관찰자들에 의해 의미가 재구성되는 활동의 재현물로 보는 이러한 맥락은, 기록관리의 방법론과 아카이브의 의미에 대한 변화를 촉구하게 되었다. 즉, 기록관리 원칙으로서 출처주의가 가진 기술적(descriptive) 제한성과 경직성을 극복하는 방법으로서의 ‘사회적 출처(social provenance)’ 개념의 도입, 또는 아키비스트 중심의 기록 선별·평가가 가진 구조적 권력성을 넘어서기 위해 평가 과정에서 배제되거나 침묵하고 있는 독자들을 인식하고 이들의 참여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그것이다. 한편, 기억 담론에서 기억은 과거 그 자체가 아니라 과거를 현재적 시각에서 해석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아카이브 역시 세대에 걸쳐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동적(dynamic)인 소통 공간으로의 다시 정의할 수 있다(Foote 1990).

김명훈(2014), 신동희, 김유승(2016), 윤은하, 김유승(2016) 등도 사회적 기억 구축의 역할을 부여받은(또는 자임한) 아카이브(또는 아키비스트)에 대해 논하면서 아카이브·아키비스트가 시민사회의 다양한 행위와 현상을 보존·전송할 가능성을 내포한 사회적 기억을 구축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때 기억은 기존의 역사 개념과 달리 개인적(역사는 ‘저대 서사적’)·현재적(역사는 ‘과거 지향적’)·주관적(역사는 ‘객관적’)·포괄적(역사는 ‘선택적’)이며, 다층적 서사의 구성을 통해 집단정체성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아카이브·아키비스트는 사회적 기억을 형성하는 기록관리를 위해, 기억 및 기록에 대한 독자의 해석 공간을 마련하고, 그동

안 기록관리의 대상에서 배제되었던 사회적 소수자 중심의 기록관리를 지향하며, 기존 텍스트 중심의 기록을 넘어 다양한 기록의 형태를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셋째, 기억과 기록을 권력에 저항하거나 사회적 소수자를 지지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방식을 고려하면서, 아카이브와 아키비스트의 사회 정의적 역할을 고민하는 논의다. 이는 기억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적 소수자 또는 대항기억의 수집과 관리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사회 참여적 아카이브라는 실천적 방안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등장했다. 권력의 주장을 ‘과잉대표’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제도적 아카이브의 ‘공식 기록’과 달리, 기억은 사회적 영향을 받으면서도 개인 고유의 것이므로, 특히 그동안 ‘과소대표’되었던 소수자의 표현을 담아낼 수 있기에 사회정의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Punzalan(2009), Caswell(2010a) 등은 ‘크메르 루즈(Khmer Rouge)’⁵⁾와 같은 사회적 사건을 다룬 아카이브가 억압적 사회체계를 일깨우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사건으로 인해 소중한 것을 잃었거나 억압된 피해자나 생존자 공동체를 위한 기념과 추모의 장소로도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Nannelli(2009)는 인도네시아 정권 아래 동티모르의 인권침해 조사 위원회 기록을 검토하면서, 기억에서 끌어낸 개인적이고 집합적인 증언을 토대로 작성된 기록이 이전의 범죄적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Josias(2011)는 아파르트헤이트 이후 남아공에서 사회적 차별을 넘어서기 위해 공공 전시, 구술 기록 수집, 공개 대화 등을 통해 새로운 기억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기관들의 노력이 있었음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기억·기록의 역할을 인정하고, 기존 제도적

5) ‘크메르 루즈(khmer rouge)’는 1967년 설립되고, 1975~1979년 캄보디아를 지배한 급진적 공산주의 단체로, ‘붉은 크메르’라는 뜻을 갖고 있다. 1975년 캄보디아의 론 놀 정권을 무너뜨린 후, 1979년까지 노동자와 농민의 유토피아를 건설한다는 명분 아래 최대 200만 명에 이르는 지식인과 부유층을 학살한 이른바 ‘킬링필드(killing fields)’ 사건을 일으켰다. 네이버 기관단체사전 : 종합, 2018. 검색일자 : 2018.11.30.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647053&cid=43124&categoryId=43124>

아카이브의 기록관리를 넘어선 광범위한 기억의 기록화의 필요성과 이를 수행할 아키비스트의 전문성을 요구했다. 실천 과정으로서의 기억 담론에 대한 논의는 이경래, 이광석(2017)의 대항기억 개념과 연결된다. 이들은 사회적 기억을 사건을 직접 체험한 형태의 1차 기억과 이를 비판적 검토하여 타인과 공유하고자 하는 지점에서 만들어지는 2차 기억으로 구분하고, 이들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 국가 권력의 공식기억과 경쟁하는 대항기억의 서사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이처럼 기억 담론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 아래 기억과 역사, 기억과 기록의 관계, 사회적 기억 구축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아카이브·아키비스트의 역할 등의 측면에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기존 논의들은 사회적 기억의 맥락에서 기록과 아카이브의 의미와 역할을 살펴보면서도, 기억 담론이 촉발한 기록과 아카이브의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즉, 기존 ‘증거로서의 기록’과 대비되는 ‘기억으로서의 기록’, 그리고 제도적 아카이브와 비제도적 아카이브에 대한 서로 다른 사회 정적 역할에 대한 구분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적 구분 없는 기억 담론의 논의는, 결국 기록과 아카이브의 실천적 담론이 기존의 기록관리 방법을 답습하면서, 동시에 ‘기억 유지’라는 역할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논의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3) 연구 방법

이 글은 Jacobson, Punzalan & Hedstrom(2013)이 인용 분석을 위해 선별한 서구 기록학계 기억 담론의 주요 연구 목록을 연구 분석의 시작으로 삼았다. 이들은 기록학계 내 집단기억 연구와 관련하여 어떤 저자, 단행본, 연구논문이 영향력이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1980~2010년 동안 영어권 기록학계 주요 4개 학술지⁶⁾에 게재된 논문 중 집단기억에 관한 ‘핵심 연구 논문(seed article)’ 165편을 추출하고, 이들 간의 상호 인용 네트워크를 분석

하였다. 서구의 기록학 연구자들은 기억의 개념, 아카이브와 기록의 사회적 역할을 서로 연관시키는 방식의 다양한 연구를 진행했는데, 이들은 영어권 기록학계 내의 이러한 연구 영역(threads)을 아래처럼 크게 4가지로 구성하였다(Jacobson, Punzalan & Hedstrom 2013, 219).

[영역 1]

- 문화유산이자 집단정체성의 기반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아카이브
- 예컨대, 아카이브는 공통된 과거를 느끼게 하여 집단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는 다양한 방법을 보유함

[영역 2]

- 기록, 아카이브, 아키비스트가 사회적 기억을 생산, 구축, 전파(propagation)한다는 역할에 대한 비판

[영역 3]

- 아카이브, 기억 그리고 사회적 권력 간의 관계
- 사회적 기관으로서 아카이브의 윤리적 위치와 공공 기억(remembrance) 및 기념(commemoration)에 대한 아카이브의 역할에 대한 작업을 포함

[영역 4]

- 기억을 ‘증거’이자 ‘아카이브의 기억’ 개념을 포함하는 과거의 유물로 보면서, 기록의 본질을 재고(再考)하는 방안을 제안

이 글은, Jacobson, Punzalan & Hedstrom(2013)이 구성한 서구 기록학계 기억 담론의 주요 흐름을 확인하고, 이들이 살펴보지 않은 2011년 이후의 연구 흐름을 포함하여, 서구 기록학계의 가장 최근까지의 연구 흐름을 재구

6) 영어권 기록학계 주요 4개 학술지는 다음과 같다. American Archivist(미국), Archivaria(캐나다), Archives and Manuscripts(호주), Archival Science(국제 학술지). Jacobson, Punzalan & Hedstrom(2013, 219).

성하였다. 이를 위해 Jacobson, Punzalan & Hedstrom(2013)이 소개한 영역별 연구논문들을 비판적으로 추적하면서 살펴보고, 서구 기록학계 연구 흐름의 서사를 다음과 같이 구성했다.

- 기억 담론 부상 이후, 기록학계에서 '기억'은 엄밀한 개념 검토 없이, 아카이브를 '사회적 기억의 기반이 되는 문화기관'이라는 사회적 역할과 기능으로서 설정하는 과정에서 사용됨
- 기억에 대한 본격적인 고찰 이후, '증거로서의 기록'이라는 기록 개념과 이를 유지 하게 하는 진본성 및 무결성의 확보라는 기록 관리의 본령이 기억의 의미에 따라 흔들리기 시작함
- 한편, 기억 개념은 '아카이브의 사회정의'라는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도 새로운 향을 제시함

이 글에서는 Jacobson, Punzalan & Hedstrom(2013)이 소개한 핵심 연구 논문 172편⁷⁾을 위와 같은 서사로 재배치하였다. 그리고 2011년 이후의 논의 흐름을 추가하기 위해, 2011~2017년간 4개 학술지 논문 목록 중 집단 기억, 기억, 사회정의 등 위 서사와 관련 있는 주제를 다룬 논문 23편을 선별, 총 195편을 전체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이 중 Jacobson, Punzalan & Hedstrom(2013)의 저자 네트워크에서 분석한 기록학계 내 기억 담론의 주요 저자 군⁸⁾의 연구와 기억 담론 시각에서 기록·기록관리·아카이브 정의(正義)의 재정의(再定義)를 시도하는 연구 중, 피인용이 많거나 다양한 사

7) 이는 핵심 연구논문(seed article) 165편과 참고논문(reference)에서 추가로 다룬 논문 7편을 합친 값이다. 이때 기억 담론 이외의 주제(네트워크 분석 관련 연구), 단행본, 기록학 외 학계 연구자료 등은 제외했다.

8) 여기서 '주요 저자군'은 Jacobson, Punzalan & Hedstrom(2013, 228-233)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선별한 기록학계 내 기억연구의 주요 저자들로, 핵심 연구논문(seed article) 165편의 저자이며, 후속 연구 등에 의해 6회 이상 인용된 저자들을 말한다. 이들은 알파벳 순에 따라 Bastian, Brothman, Caswell, Clanchy, Cook, Cox, Craig, Eastwood, Foote, Gilliland, Greene, Harris, Hedstrom, Jimmerson, Ketelaar, McKemish, Nesmith, Piggott, Schwartz 등 19명이다.

례를 논의하는 연구논문 55편을 추출하여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선별된 연구들은 연구논문별로 핵심 요지와 키워드가 담긴 카드를 작성하고, 마인드맵 형태로 재구성하여 위 서사의 논지를 보충하면서 글을 작성하였다.

2. 기록과 기억

1) 증거와 재현의 기록

(1) 사건을 '재현'하는 '증거'로서의 기록

기록학은 전통적으로 기록의 효용을 '증거적 가치'로 보았다. 기록의 주요 형태는 종이 문서를 주로 다루던 시대에서 전자기록 중심의 시대로 변해왔지만,⁹⁾ 증거라는 기록의 가치는 유지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기록(record)'이 개인·조직 등 주체가 법적 의무나 업무처리행위 등 일련의 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성·접수되어, 행위에 관한 증거적 정보를 담보하는 것으로 정의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Pearce-moses 2005, 326-330; ISO 15489-1 : 2016, 3.14.).

한편 '증거(evidence)'는 일반적으로 논쟁 과정에서 이해나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특히 법률적 의미로서 증거는 사실을 증명 또는 반증하는데 사용되는 기록·객체·증언·기타 자료들 등을 가리키며, 기록학에서는 증명하거나 뒷받침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조직의 업무 행위

9) 여기서 '전자기록 환경'은 전자·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비롯된 기록의 생산·유통·활용·관리 상의 변화를 말한다. 이때 이 '변화'는 단순히 종이기록에서 전자기록으로의 매체 변화를 넘어, 기록의 생산·관리의 환경 변화로 인한 관리상의 총체적 변화를 아울러 가리킨다. 즉, 전자기록 환경에서도 종이와 기타 기록매체는 생성·활용되고 이들은 공존하지만, 관리체계의 중심이 전자기록으로 변화함에 따라 기록관리의 체제와 형식, 논리 역시 전자기록의 특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화했다는 것이다(이승억 2002, 42; 원종관 2008, 1-2; 김명훈 2009,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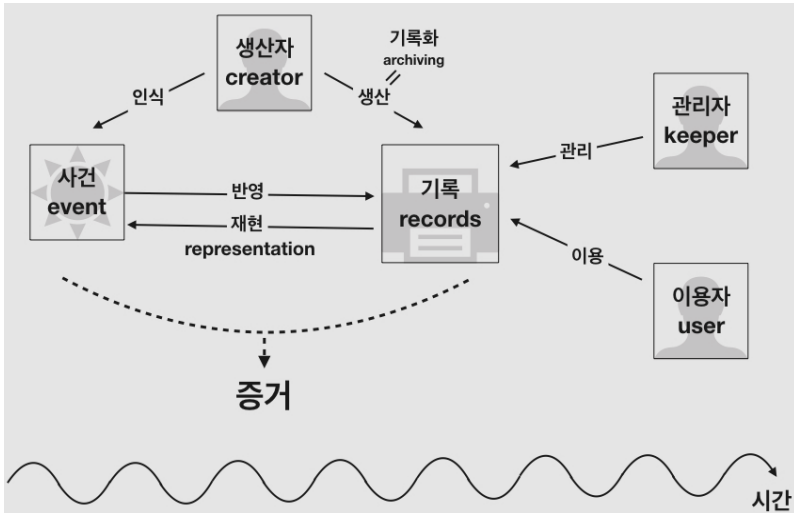
일체가 담긴 기록을 증거로 상정한다(Pearce-moses 2005, 152). 증거와 기록의 연관성은 Schellenberg(1956/2002)가 기록에 담긴 정보를 통해 기관의 역사적 정보를 서술할 수 있는 가치인 ‘증거적 가치’를 비현용 단계의 기록 평가 기준으로 제안하면서 더욱 긴밀해졌다. 즉, 기록의 효용은 기록이 업무 행위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accountability)’을 제공하여, 업무의 행위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증거성’에 있다(설문원 2018, 10-11). 이때 ‘증거로서의 기록’은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에 객관적으로 담은 것으로 이해된다.¹⁰⁾

이렇듯 기록학이 기록의 가치를 증거로 설정한 것은 기록학의 근대적 기원이 역사학 또는 사회학의 논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실증주의 역사학을 주창하며 기록보존소 설립 운동을 주도한 Ranke는 역사를 시간의 경과, 즉 역사 과정에서 성장, 변화하면서 본질을 갖추어가는 주체의 서사로 상정하는 ‘역사주의적 실증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그에게 기록은 역사를 구성하는 증거로서 사료수집과 편찬의 도구였다(노명환 2011, 103-104). 한편 프랑스혁명 이후 근대 국민국가로 재편되는 과정에 있던 서유럽 국가들은 통치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해 Weber의 관료제 개념을 도입했다. 관료제적 통치의 핵심 수단은 통치행위의 자의성을 줄이고 규칙성, 예측가능성을 늘릴 수 있는 ‘문서에 의한 행정’, 즉 문서(기록)제도였다. 문서 제도를 통해 조직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전개하고, 조직과 조직 구성원의 통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다(노명환 2011, 105-106; 정준영 2017, 3).

그렇다면, 증거로서의 기록은 어떻게 성립 가능한가? 증거 기록의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 사건의 발생부터 기록의 생산과 활용까지의 과정에서 나타난 요인들을 나누어 살펴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

10) 증거를 의미하는 단어 ‘evidence’는 라틴어로 ‘명확하게 시야에 나타난 것(manifest of in plain sight)’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는 증거가 은유적 의미에서 ‘과거의 사건과 같은 보이지 않는 것을 명백히 보이게 한다는 것을 뜻한다(Macneil 2000, Pearce-Moses 2005, 152에서 재인용).

〈그림 1〉 사건을 재현하는 증거로서의 기록 개념도



※출처 : 저자 작성.

〈그림 1〉은 기록 관련 정보 개체(entity)를 사건, 생산자, 이용자, 관리자라는 틀로 나눈 개념도이다.¹¹⁾ 우선 기록 이전에 기록의 대상이 되는 사건(event)¹²⁾이 존재한다. 사건은 벌어진 이후 행위자(agent)¹³⁾에게 직·간접

11) 기록이 증거로서 성립되는 구조에 대한 개체적 구성의 아이디어는 Deleuze의 관계 중심적 존재론의 사유를 참고했다. Deleuze는 세계의 모든 존재를 각자의 체계를 가지고 운행하는 ‘기계(machine)’로 보았다. 이때 이 기계는 설계된 대로 오차 없이 움직이는 ‘시계’와 같은 기계적 의미가 아니라, 그 존재가 관계 속에서 서로 접할 때 비로소 의미가 피어나는, 인간과 비인간을 포함하는 모든 것을 말한다(김재인 2013). 그에 따르면, 모든 사건, 행위, 현상은 ‘영토성’과 ‘코드성’, ‘배치성’으로 이루어져있다. 모든 기계로서의 존재는 자신이 행위하는 영역, 즉 ‘영토’ 속에 존재하고(영토성), 이들은 각각 상호 관계를 구성하는 방식인 언어적·의미론적 코드를 가지고 있다(코드성). 이들 존재가 각자의 영토 속에서 코드에 따라 배치되면서(배치성) 사건을 만들어낸다. 결국, Deleuze에게 있어 ‘사건’이란, 영토성과 코드성의 배치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다(박영욱 2009). 데이터 모델링(data modeling)에서는 행위나 사건 등 인식의 영역이 아닌, 순수하고 본질적 영역인 영토성 존재를 주요 관심으로 삼고, 정보 개체를 구성한다(김상래 2015).

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이 과정에서 행위자는 사건에 참여하거나 개입된다. 이 그림에서 사건에 참여하는 행위자는 생산자, 관리자, 이용자 모두라고 할 수 있다. 기록은 사건 이후에 생산되므로, 사건과 기록화된 기록 사이에는 반드시 일정한 시간이 소요된다. 사건이 발생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생산자(creator)는 사건을 ‘인식’하고, 이후 기록을 ‘생산’, 즉 ‘기록화(archiving)’한다. 이후 이용자(user)는 기록을 ‘이용’하여 이를 매개로 사건에 접근한다. 이때 기록은 사건을 ‘재현(representation)’하여, 이용자가 기록 이전 과거에 발생한 사건을 인식하는 것을 돕게 되는데, 이는 기록이 사건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이렇게 하여 사건을 반영한 기록은 증거로서 성립된다. 즉, 기록이 증거로서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건이 기록으로 재현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를 바꿔 말하면 증거는 기록의 재현성에 근거하는 것이다.

(2) 증거-재현 기록의 한계

앞서 논의한 기록의 증거성은 크게 세 가지 점에서 그 한계점을 지적받고 있다.

첫째, 기록은 사건을 그대로 반영하는가? 앞서, 사건은 기록 이전에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질문은 기록이 과거의 사건을 담고 있는 것인지에 대

-
- 12) ‘사건(event)’에 대해 이 글에서는 시간의 영향을 받아 매 순간 변하는 유동적 존재라는 의미의 ‘시뮬라르크(simulacre)’ 개념을 차용한다. 사건을 시뮬라르크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이 한 순간 또는 일정기간 동안 발생하여, 한 상태에서부터 다른 상태로 변화하고, 그것이 우리 삶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임지훈, 오효정, 김수정 2017, 178-179).
 - 13) ISO 23081은 ‘행위자(agent)’를 ‘기록 생산, 획득 또는 기록관리과정에 책임이 있거나 관련 있는 개인·그룹·조직’으로 상정하고 있다(ISO 23081-1 : 2017, 3.1.). 한편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Agent-Network Theory, 이하 ‘ANT’)은 행위자에 인간 외에 비인간을 포함시켜 그 범위를 확장시킨다(김연철, 이준석 2016). 박지애(2015, 41)는 캐나다 ‘Whole-of-Society’ 접근법의 이론적 배경으로서, ANT의 행위자 개념 등에 입각한 디지털기록유산의 사회적 수집·평가 모형에 대해 다룬 바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기록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인간과 비인간을 포함한 행위자의 관여 여부를 기준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 물음으로 바꿀 수 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록을 통해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알 수 있는가? 기록은 과거를 아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가?

Lowenthal(1985/2006)은 이러한 논의에 대해 보다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과거는 지나가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지나가 버린 과거가 현재의 우리에게 남기는 것은 기록, 유물, 유적, 기념비 등 수많은 과거의 물질적 잔존물과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기억에 의해서이다. 과거는 무한하여, 파편으로 남겨진 기록과 유물만으로는 이를 온전히 되살릴 수 없을 뿐더러, 어떠한 역사적 설명도 과거의 실체 그 자체가 될 수 없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과거가 아닌, 현재를 살아가면서 과거를 인식한 이들이 재구성한 세계 일 뿐이다.

그렇다면 과거가 담겨있다고 여겨지는 기록을 통해 우리는 세계를 알 수 있는가? Derrida는 문자기록 또는 글쓰기를 통해 알 수 있는 세계의 한계를 논의했다. 서구 형이상학에는 진리가 음성에 담겨있고, 문자는 이를 보완하는 부차적 도구에 불과하다는 ‘음성 중심주의’가 존재했다. 즉, 선형적 세계가 존재하고, 이를 표상하는 것은 음성 언어라고 본 것이다. Derrida는 해체적 입장에서, 음성이 문자라는 보완물 없이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문자는 음성의 존재가능성을 규정한다면서 음성 중심주의를 전복한다. 한편 Saussure는 구조언어학을 통해 기표와 기의의 부정합 등을 논하면서 언어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제시했다. Derrida는 이 논의가 언어의 사물 재현성이라는 기능을 해체할 수 있게 했다고 보았지만, 여전히 자연적이거나 본래적인 기표를 음성으로 본다는 점에서 음성 중심주의를 되풀이한다고도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문자와 음성 모두 세계와 일치하지 않는다. 세계를 표상하고, 이를 문자로 남기려고 하는 시도는 문자를 기억의 연장가능성의 차원에서 보려는 것이지만, 실제 문자를 통해 알고자 하는 근원 혹은 기원은 존재하지 않고, 그곳에는 유령과 같은 허구적 존재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진태원 2013; 조선령 2016).

위의 논의는 결국 기록을 통해 재현된 과거와 실제 사건 간의 간극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즉, 기록에 사건의 모든 것이 다 담기지 않는다는 것이

다. Harris(1997)는 기록을 사건이 비치는 ‘창문 조각(silver of a window)’에 비유했다. 창문이 태양 빛의 일부만을 통과시키는 것처럼, 기록을 통해 전달되는 사건 역시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기록은 이용자가 사건을 알 수 있게 연결해주는 매개체이지만, 한편 기록에 담긴 시각을 통해서 사건의 일부만을 해석하여 보여주기도 한다.

둘째, 사건의 온전한 재현은 가능한가? 앞서 논의처럼 기록이 사건을 온전히 반영하지 않는 매개체라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사건의 전모 역시 달라진다. 그렇다면 기록에 담긴 사건은 생산자의 의도 그대로 이용자에게 단일하게 재현되는가? Cook(2001, 10)은 포스트모더니즘적 관점에서, 기록의 경계와 맥락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중재를 통해 그 의미가 지속적으로 변한다고 보았다. 즉, 기록 행위자들의 개입에 의해 기록의 의미가 무한히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이는 이용자가 기록에 접근하여, 기록에 담긴 사건을 재현하려고 할 때, 그 사건은 생산자의 의도가 아니라, 그것을 읽는 이용자의 해석에 따라 매번 새롭게 구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Ketelaar(2001)는 행위자들이 기록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무한한 해석이 발생하는 이러한 과정을 ‘의미론적 계보학(semantic genealogy)’이라고 표현했다.

마지막으로, 기록의 ‘증거성’은 어떻게 성립되는가? 기록—특히 전자기록은 더더욱 그러한데—은 일반적으로 진본성과 이를 뒷받침할 무결성,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그 증거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최영민 2018). 하지만 기록의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이 확보되었다고 그것이 바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의 확보는 기록이 증거로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그렇다면 기록의 증거성을 인정하는 것은 누구인가? 기록의 증거적 효력을 실제로 발생시키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법적 쟁송, 즉 재판이다. 즉, 재판 과정에서 사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한 근거로서 증거능력을 가진 기록이 채택되었을 때 기록은 비로소 증거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때 재판과정에서 기록은 재판부의 객관적 판단을 통해 그 증거성을 인정받지만, 기록의 진본성 확보와 별개로

기록 그 자체는 해석의 객체이기 때문에, 기록의 증거 인정 과정 역시 재판에서의 관행과 문화에 영향 받을 수 있다. 즉, 기록의 증거성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증거로서의 기록의 비판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함의는 무엇인가? 기록이 증거로서 사건을 반영하지 못한다거나, 증거 기록으로 사건의 사실 여부를 알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 불가능하다는 것은, 과거를 알기 위한 도구로서 기록이 무용하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기록의 증거성만으로는 사건의 총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에 가깝다. 이는 사건, 증거, 기록 간의 관계적 접근을 촉구한다. 기록을 사건 그 자체를 대변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 사건에 접근하기 위한 증거적 도구 중 하나로 볼 것인가 또는 기록에 담긴 사건을 사실 그 자체로 볼 것인가, 사건의 해석 중 하나로 볼 것인가의 문제인 것이다.

결국, 기록은 사건에 접근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을 제공할 뿐이다. 기록은 닿을 수 없는 과거에 발생한 사건의 지식을 얻어 이를 해석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때만 유의미하다(Meehan 2009). 이제 아카이브에서 기록과 사건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역사를 서술하려는 과정임과 동시에 역사적 지식을 생산하는 과정이 되었다(Dirks 2004). 증거로서의 기록은 과거와의 직접적 연결이 아니라, 과거를 상상하는 감각을 제공(figurative link to past)하게 되는데, 이는 반드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건에 맞는 우연적 만남에 가깝다. 이는 증거로서의 기록을 통해 달성하려던 설명책임성(accountability)이라는 기록관리의 정의(archival justice)의 근원적 불가능성을 내포한다. 또한 관료제 및 행정 권력의 도구로 정의되는 기존 기록의 개념만으로는, 제도권 바깥의 아카이브와 기록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한계를 보인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한다.

한편, 기록을 통해 과거를 재현할 때, 기록의 생산과 유지 과정, 기록·사건과의 관계 맥락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기록에 담긴 내용 그 자체에 대한 이해만큼이나, 기록을 생산한 생산자들이 사건을 어떻게 인

식했는지, 또는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는 것이다. 조민지(2011)는 기록 기술(description)에 아키비스트의 주관적 판단과 정리 과정을 폭넓게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았는데, 이는 기록 기술이 기록의 해석이 담긴 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과 연결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기록은 기술에 담긴 폭넓은 맥락과 함께 읽을 때 비로소 과거에 가까이 닿을 수 있다는 것이다.

2) 기억과 해석의 기록

(1) 기억 · 집단기억의 등장

‘기억’은 흔히 과거에 대한 사건, 사람들, 장소에 대한 생각을 유지, 영속하거나 되살리는 능력 또는 그 지식으로 이해된다(Pearce-moses 2005, 247-248). ‘memory’의 어원에 해당하는 고대 그리스어 ‘mermeros’는 잃을 수 있는 어떤 것에 대한 주의(care for something losable)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즉, 기억은 원래 현존하던 것의 상실과 함께 나타나는 시초로의 복귀를 의미한다(Scott 2004, 150, 정근식 2013, 349에서 재인용). 인간은 기억을 통해 사고, 학습, 소통 등 인지능력을 발휘하면서 생활을 영위한다. 기억은 본질적으로 개인적 활동이지만, 사회구성원으로서 타인과 지속적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므로 사회적이고 집단적인 속성을 가지기도 한다.

이러한 기억 개념이 담론으로써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근대성에 대한 성찰적 접근을 시도했던 포스트모더니즘의 사유와 궤를 같이 한다. 기억 담론의 기반이 된 집단기억 개념을 제안한 Halbwachs에 따르면, 집단기억은 집단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이 과거에 대해 갖는 어떤 공통된 인식이며, 이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기반이 된다고 보았다(김영범 1999; Miller 2006, 120-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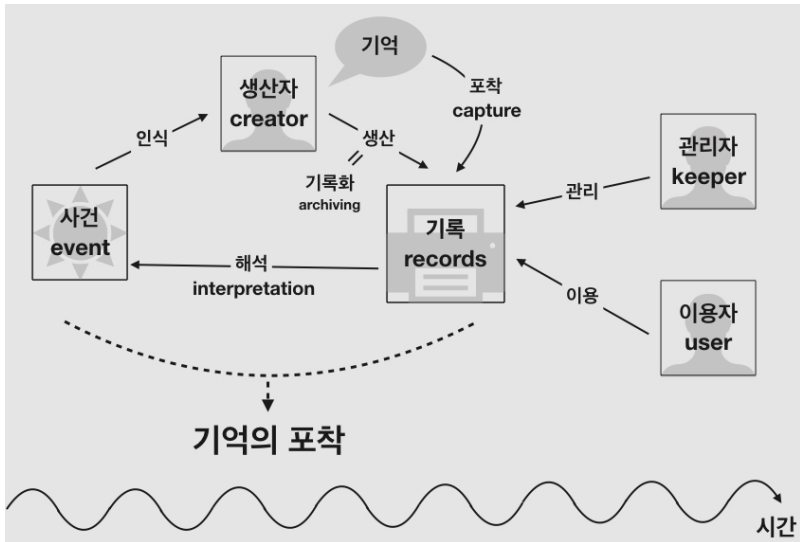
기억 담론의 부상과 함께, 역사와 기억은 점차 분리하여 인식되었다. ‘역사가 존재하는 과거의 실체를 인식하여 문서화하는 인공적 기억체계라면,

‘기억’은 과거의 지식 형성에 기여하는 절대적 현재성의 현현으로 보게 된 것이다. 과거에 대한 기억과 역사의 정반대의 시각은, 기억의 시간성이 가진 속성에서 기인한다. 즉, 기억은 “시간의 경과인 ‘공간화’를 압축하는 현재적 질서의 형태(a form of temporal ordering that compresses - that “spatializes” - the passing of time)”(Brothman 2001, 62)인 것이다.

이는 기록과 역사, 기억 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역사가 과거를 현재와 구분되는 실체로 증명하기 위한 사료적 증거로서 기록을 설정한다면, 기억은 현재 소속된 사회구성원들의 집단 정체성 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사료이자 과거의 잔여물로서 기록을 상징한다(Brothman 2001).

(2) 사건의 ‘기억’, 기억의 ‘기록’, 기록의 ‘해석’

〈그림 2〉 사건을 기억하여 기록하고, 이를 해석하면서 구성되는 기억으로서의 기록 개념도



※출처 : 저자 작성.

기억 담론의 시각에서 기록의 생산과 이용 과정을 재구성해보자. 앞서 증거로서의 기록과 마찬가지로, 기억의 기록 역시 사건, 행위자, 기록 등 개체 간의 관계를 구분하였다. 기록의 생산과 이용과정은 〈그림 2〉처럼 크게 세 가지 과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사건의 ‘기억’ 과정이다. 일어난 사건은 그 사건과 관여된 모든 인간 행위자에 의해 기억된다. 이때 행위자는 2장에서 언급처럼 사건의 발발 과정에서 인지적, 물리적 영향을 받은 모든 이들을 말한다. 행위자는 사건에 영향을 받거나 개입하면서 사건을 인지하고, 그 사건의 형성 과정을 나름의 논리적, 감정적, 감각적 방식으로 기억한다. 이때 기억 그 자체는 기록이 아니어서, 기억한 모든 것 중 기록으로 전해지는 것은 극히 일부이며, 어떤 기억은 발화되지 않은 채 남아있을 수도 있다.¹⁴⁾ 또한, 타인에 의해 작성된 기록을 통해서 기록이 생성되기도 한다.

둘째, 기억의 ‘기록’ 과정이다. 기억이 기록으로 포착(capture)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휘발되는 기억의 불안정성에서 기인한다. 인간 행위자는 스스로 또는 타인과 공유하고자 기억을 기록하는데, 기억은 종종 기체처럼 쉽게 날아 가버려, 문자화 또는 이미지화하지 않으면 이를 전달하기 어렵다. 따라서, 인간 행위자는 특정 시공간에 대한 기억을 ‘고체화하여’ 기록한다. 즉, 기록은 기억의 찰나의 고정인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기억을 기록하는가? 인간은 인지적 활동을 하는 동안 크고 작은 기억 행위를 계속 수행한다. 하지만 그중 일부만이 기록 대상으로 채택되어 기록된다. 이것은 앞서도 언급했듯 ‘공유의 필요성’에 근거한다. 기억이 기록의 형태를 통해 공유되면 사회적 의미를 갖게 되고, 이를 통해 인간은 비로소 타인과 소통한다. 즉각적 소통은 음성 또는 시각 언어로 가능하지만, 소통의 시공간을 넓히기 위해서는 기록이 필수적이다. 즉, 기록

14) 최정은(2011)은 이런 맥락에서 ‘구술기록’이 공통의 경험을 가진 이들의 발화 공간이자 도구로서, 문헌기록의 결락에 대한 보완을 넘어, 사회적 기억 형성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은 행위자 사이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소통하는 ‘매개체’인 것이다.

이렇게 공유된 기억은 ‘집단기억’의 기반이 된다. 이때 집단기억은 사회적 연대감과 공동체성을 지닌 사회구성원들이 보유한 공통된 신념과 생각 또는 과거 기록의 유지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집단기억이 ‘생각’이자 ‘기록 유지 활동’인 이유는, 앞서 말했던 기록의 매개체적 특성에 기인한다. 한 사회의 개인들은 공유된 기억, 즉, 집단기억을 만들기 위해 의식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함께 모여야 한다. 개인이 가지고 있던 고유한 기억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경험을 통해 사회적 기억이 되고, 사회적 기억은 기록이라는 문화적 도구를 통해 공유된다(Ketelaar 2005). 이때 이 ‘문화적 도구’는 물리적이거나, 쓰여 있거나, 구술된 형태는 물론 풍경, 건물, 기념물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형태의 텍스트를 말한다.

셋째, 기록의 ‘해석’ 과정이다. 기록의 해석은 기록이 어떻게 이용되는가와 관련된 문제다. 사건의 기억을 담은 기록은 이용자에게 이용되는 과정에서 그 의미가 새롭게 만들어진다(Meehan 2009). 즉, 같은 내용의 텍스트가 담긴 기록이라도, 이용자의 사회적, 시대적 상황과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Ketelaar(2012)는 아카이브에서 기록이 마치 토지가 경작되듯 ‘재배(cultivating)’되어, 이용자에 의해 해석되고 이용되는 의미 저장소라고 주장하며,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진실은 무한대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록은 기록 생성 이후 이용자의 해석을 기술에 포함하면서 지속적으로 바뀌는데, Ketelaar(2005)는 이를 기록의 ‘동적 과정(dynamic process)’이라고 표현했다. 즉, 의미는 고정되지 않고, 보살핌, 탐구, 또는 고통으로 인한 삶의 습관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계속 변화한다는 것이다(Furner 2004, 90). 한편, 이런 맥락에서 아카이브의 이용자는 기록에 담긴 사건의 기억을 다시 인식하고 해석하면서 과거를 재구성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렇다면, 기억으로서의 기록 개념의 함의는 무엇인가? 앞서 논의한 기

역의 시각은, 아카이브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다. 아카이브가 보관하는 기록은 '영구 가치(enduring values)'를 가졌다고 평가된 기록이었다. 이때 영구 가치란 기록에 선형적인 시간이 축적되어 있음을 개념화한 것이었다. 그런데 앞서 논의처럼 기억으로서 기록 개념이 다시 정의된다면, 아카이브의 기록은 과거가 축적된 것이 아닌 현재적 질서를 담는 공간으로 상정될 수 있다. 즉, 아카이브는 현재의 시각에서 세계를 인식하는 틀이자 지적 공간인 것이다(Nesmith 2002). 이 때, 아카이브라는 인식의 틀은 아카이브가 보유한 기록, 지식, 문화에 따라 구성되며, 이는 사람들이 그들의 의미에 대해 논쟁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한 존재한다. 결국, 아카이브는 기억들, 이야기들, 기록들이 서로 경쟁하는 공간, 포럼 또는 공공장소인 것이다(Ketelaar 2008). 특히 정보나 아이디어의 사회적 전송에 있어 구술, 이미지, 의례적 전송보다 쓰인 문자에 더 의존하는 사회에서, 과거의 '과거다움(pastness)'은 기록을 통해 재구성되는데, 이때 과거다움은 아카이브의 기록에 담겨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록이 아카이브에서 선별, 보존, 그리고 활용되면서 구현된다(Ketelaar 2001, 49-51).

결국, 기록과 아카이브는 어떤 '메시지'로 이해될 수 있다(Foote, 1990). 아카이브가 소장한 '문서와 물질 유산 컬렉션'은 시공간적 범위를 넘어 미래 세대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사소통의 도구인 것이다. 특히, 기록에 담긴 기억이 메시지일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사건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현재적 해석, 즉 지향성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이는 아카이브가 정보나 지혜를 전송하는 역할을 넘어, 사회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비극적 사건의 기억 소멸을 저항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과 연결된다. 이는 집단기억이 비극적 사건이 일어난 역사적, 사회적 장소·공간·문화적 경관과 연결되어 발생하는 것과 연관된다. 결국 아카이브는 특정 사건에 대한 망각을 중용하는 사회와 권력에 대해 저항하면서, 한편으로 다른 기억기관에 집단기억의 형성을 촉구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 아카이브는 기억의 소멸을 막는 최후의 보루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이런 맥락에서 아키비스트는 기록을 생산자와 이용자에게 매개하는 중개자(facilitator)로 정의할 수 있다. 아키비스트는 당대 사회의 어떤 과거를 기억할 것인지, 즉 어떤 기록을 지킬 것인지 판단하고, 기록의 생산 과정에 개입하거나 생산자의 적극적 기록 생산을 유도한다. 또 이용자가 기록을 이용하면서 남긴 기록의 해석을 기록 기술에 포함해 기록의 의미를 풍부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3. 기록관리(recordkeeping)

1) 기록관리 정의의 재고(再考)

기록관리의 역할과 방법은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해왔지만, 기록관리의 핵심이 적절한 기록관리를 통한 조직의 법적·업무적 활동을 재현하게 할 증거의 확보라는 점은 유지되어왔다. 이는 기록관리의 역사적 기원으로부터 유래한다.

‘보존기록(archive)’ 관리의 중요 테마는 고대 로마법에서 기원하는데, 이는 ‘공적 신뢰’와 ‘영속적 기억’으로 표현된다. 즉, 증명하려고 하는 사실은 문서를 통해 시간을 넘어선 영속적 기억이 되며, 이 문서는 아카이브에 보존됨으로써 당대 사회의 공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Duranti 1994, 331-332). 이러한 증거로서의 기록의 중요성은 18세기 이후 실증주의 역사학의 기반에서 기록관리를 추구한 Ranke나, 도구적 합리성의 방법으로서 ‘문서에 의한 행정’을 실현할 제도를 관료제라고 보았던 Weber 등의 논의를 지나(노명환 2011; 정준영 2017), 근대 기록학을 주창한 Jenkinson에 이르러서도 유지된다. Jenkinson은 보존기록의 속성을 진본성, 불편부당성, 유일성, 자연성, 상호연관성으로 규정했다. 여기서 보존기록은 자연적인 활동 과정에서 만들어진 증거로서, 그 의미는 자명하면서 유일하고, 그 내적

구성은 객관성과 연관성을 지닌 하나의 유기체와 같은 실체로 간주되었다(이승억 2018).

1950년대 이후 미국에서 기록관리 이론을 제시한 Schellenberg는, 2차 대전 이후 거대국가의 출현과 함께 기록 생산의 수요가 늘어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량 기록을 평가하기 위한 기록체계를 고안했다. 이는 라이프 사이클(lifecycle)에 기반한 현용과 비현용 단계의 기록, 그리고 이에 대응한 1차적 가치와 2차적 가치의 구분이었다. 현용 단계에서 생산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증거가 1차적 가치라면, 2차적 가치는 생산자의 활동을 연구할 수 있는 증거 또는 정보적 가치, 즉 업무의 재현을 전제로 한 증거성에 기반한 구분이라고 볼 수 있다(이승억 2018, 184-187).

한편, 1990년대 이후 전자기록환경의 등장에 따라 기록관리에서도 전환적 사고가 나타났다. 종이 기록과 달리 내용, 구조, 맥락이 흩어져 단일한 기록 아이템을 결정하기 어려운 데이터 형식의 전자기록이 주가 됨에 따라, 기록의 사후적 평가를 대신하여 기록 생산 이전에 생산될 조직의 기능을 파악하여 사전적으로 관리, 평가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이러한 사고는 특히 호주에서 기능 기반 시리즈 시스템(function-based series)의 구현과 AS 4390의 개발로 이어졌고, 이는 국제 표준 ISO 15489의 개발과 전자기록 기반의 기록관리 체제인 레코드 컨티뉴엄(record continuum)의 탄생에 큰 영향을 미쳤다(김익한 2003, 217-220; 원종관 2008, 36).

기록관리를 둘러싼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기록관리가 여전히 증거로서의 기록을 전제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2장에서 우리는 기억 개념에 의해 흔들리고 있는 기록의 증거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기록으로 세계를 전부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의 가능성은 점차 의심받고 있다. 철저한 기록 확보를 통한 세계의 엄밀한 복원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을 넘어서 새로운 질문은 무엇일까?

그동안 아카이브의 테제는 ‘세계를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여기에서 기록은 과거 세계를 복원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기록의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의 확보가 요구되었다. 그렇다면, 이제 아카이브의 새로운 테제를 ‘어떤 과거의 세계를 기억할 것인가’로 설정하면 어떨까? 이는 기록관리가, 증거를 위한 무결성의 확보를 강조하는 것보다(남미숙 2017, 20-22), 기억이 가진 해석의 속성을 고려하여 세계에 대한 인식 불가능성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아카이브가 지향하는 현재적 속성으로 과거를 해석하는 것을 중시하는 태도에 대한 제안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공공 아카이브의 테제는 효율적 통치 수행을 위한 문서 기반의 행정에 있다. 이때, 공공 아카이브는 엄정하고 객관적인 권력을 수행하는 국가의 선을 반영하려는 세계 안에 있다. 여기서 공공 기록은 행정의 투명성을 반영하려는 기능을 수행한다. 한편, 소수자 아카이브의 테제는 기억되지 못하고 기록되지 못한 소수자의 목소리를 발현하는 공간의 제공에 있다. 여기서 소수자 아카이브는 권력에서 배제되어 기억되지 못하고, 궁극적으로 존재하지 못하게 될 운명에 처한 이들을 바라보고 있다. 각 아카이브의 시각은 서로 다른 세계의 해석을 반영한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카이브의 존재 가치에 대한 질문을 바꾸고, 그 존재가치에 따라 서로 다른 아카이브가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들에게 각각 새로운 기록관리의 지향점을 설정하는 것일 수 있다.

이에, 다음 절에서는 기록관리에 관한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왜 관리하는가? 무엇을 관리할 것인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에 대해 증거-재현 기록과 기억-해석 기록이 답변하는 양상의 차이를 통해, 기억담론의 기록관리에 대한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이때 아카이브의 형태에 따라 그 기능이 다르므로, 크게 ‘제도 아카이브’와 ‘주제 아카이브’라는 두 가지 이념형(ideal type)을 통해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이때 제도 아카이브와 주제 아카이브를 나누어 설명한다. 아카이브는 그 형태에 따라 운영 방식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각 아카이브에서 추구하거나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정의 역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아카이브의 이념형을 크게 제도 아카이브(institutional archives)와 주

제 아카이브(theme archives)로 구분해 보았다.

제도 아카이브는 모기관의 부설로 설립되어, 업무를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 복무형(in-house) 아카이브다. 이들은 모기관의 업무 이후 관리가 필요한 기록을 이관하여 관리한다. 이들은 크게 관료제 기반의 제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국가, 기업, 대학·학교, 병원, 종교 아카이브 등이 이에 속한다.

주제 아카이브는 제도 아카이브와 달리 모기관을 두지 않거나, 또는 모기관의 업무 기록을 주 관리 대상으로 하지 않는 대신, 특정한 주제를 바탕으로 기록을 광범위하게 수집하는 수집형(collective), 또는 메뉴스크립트 보존소(manuscript repository)를 말한다. 이는 다시 크게 세 가지 아카이브로 구분할 수 있다. ‘일상(daily-life) 아카이브’는 개인, 지역, 공동체 등 개인·집단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기록을 수집한다. ‘예술(art) 아카이브’는 문학, 영화, 연극, 음악 등 예술적 표현과 관련된 기록을 다룬다. 한편, ‘진실-기억(truth-memorial) 아카이브’는 갈등, 차별, 탄압 등 사회적 사건의 발발 이후 형성된 소수자들의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치유를 도모하여 갈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 사건과 관련된 각종 기록을 수집, 관리하는 아카이브를 말한다.

2) 기억 담론의 영향에 따른 기록관리의 역할

(1) 증거-재현 기록의 기록관리

왜 관리하는가? 제도 아카이브는 기록관리를 통해 행정권력 운영의 투명성과 설명책임성을 확보하여,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권력의 남용을 견제한다. 한편 진실-기억 아카이브는 사건의 진상규명, 갈등의 재발 방지, 피해자들의 치유(정은진 2017) 등 상호 이해의 공간으로 설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무엇을 관리할 것인가? 제도 아카이브는 행정권력이 수행되는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을 관리한다. 한편 진실-기억 아카이브는 사회적 사건에서 억압된 피해자들의 기록 또는 국가 주체에 의해 주목받지 못했던 공동체, 개인, 일상의 기록을 관리한다.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제도 아카이브는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을 제고하여 증거적 기록을 확보하고자 한다. 반면 진실-기억 아카이브는 주로 수집전략에 따라 기록을 수집하고, 특히 기록화되지 않은 이들의 구술기록을 적극적으로 수집한다.

(2) 기억-해석 기록의 기록관리

왜 관리하는가? 제도 아카이브가 기록을 통해 설명책임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행정권력을 견제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 다만 업무와 그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 간의 간극이 존재한다는 상황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 이는 문서에 의한 행정이라는 관료제적 이상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현 관료들의 현실적 인식에 기인한다(설문원 2018, 7). 한편 진실-기억 아카이브가 앞서 언급한 기록관리의 기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궁극적으로 아카이브가 예술적 표현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아카이브는 대항기억과 같은 작은 서사를 통해 소수자의 사회적 인정을 추구하는 예술 행동주의(art activism)의 한 방안으로 볼 수 있다(이경래, 이광석 2017, 53).

무엇을 관리할 것인가? 제도 아카이브는 공공 행정권력 과정의 기록을 관리한다. 이때 기록을 아무리 철저하게 남긴다고 하더라도 공공 업무를 책임지고 설명하지 못한다. 따라서 업무 과정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유형의 기록을 등록관리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설문원 2018, 17). 진실-기억 아카이브의 경우, 아카이브가 표현의 도구로 정의된 상황에서 아카이브의 수집 대상은 시민 다수의 기억이 될 수 있다.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제도 아카이브의 설명책임성은 업무기록의 등록

만으로 확보되지 않는다. 앞서 언급했듯 업무와 기록의 간극이 존재하고, 기록만으로 복잡한 행정의 과정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공무원의 기록 생산·제공 업무의 효율화와 부존재 및 비공개 기록에 대한 공익 침해심사제도, 그리고 공적 업무에 대한 부가적 설명을 담은 설명책임보고서 제도 등이 요구되고 있다(김익한 2018, 185-190). 한편 진실-기억 아카이브는 더 많은 시민이 아카이브를 쉽게 사용하여 표현할 수 있도록 중간 기술의 아카이브 시스템을 보급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공공 아카이브는 사회간접자본으로서 아카이브가 필요한 시민사회에 재정적, 방법적 지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4. 아카이브 정의(archival justice)

1) 사회 정의와 아카이브 정의

(1) 사회정의

사회정의는 궁극적으로 사회의 권력과 분배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Duff et al. 2013; Punzalan & Caswell 2016). 사회정의는 자유주의의 등장 이후, 시민사회가 국가에 대항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투쟁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의 확대와 균형을 도모하면서 나타났다. 사회정의는 일반적으로 기회의 평등과 같은 절차적 메커니즘의 공정성, 또는 자원분배의 평등과 시장, 재능, 근면함에 따른 합법적 불평등 사이의 균형을 중재하는 과정을 통해 실현된다.

특히 사회정의에 대한 맥락은, 1980년대 이후 홀로코스트에 대한 재평가, 제3세계 권위주의 국가의 민주화 등 탈식민·탈냉전·탈권위적 흐름 과정에서 보다 구체화되어 나타났다. 즉, 거대 담론과 권력에 의해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일어났던 개인과 소수자에 대한 폭력과 인권 침해적 사건들을 성찰적으로 숙고하고, 보다 정의롭고 민주적인 체제를 지향하는 일련의 방향을 촉구하는 이른바 ‘이행기적 정의(transitional justice)’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정근식 2013; 정문영 2018).

(2) 아카이브 정의

‘아카이브 정의’는 사회 정의의 맥락에서 아카이브와 기록관리의 업무를 다시 바라봐야 한다는 맥락에서 등장했다. 1970년대 Howard Zinn의 연설 이후, 사회 정의적 가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록관리와 아카이브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면서 이 개념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는 아카이브가 그동안 소수 엘리트 집단을 대변하는 역할만을 수행했다는 비판과 성찰로부터 출발한다. 아카이브가 기록을 통해 사람들의 삶의 서사를 담는 공간인 만큼, 그동안 사회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회적 소수자의 존재를 포함하는 다원적 사회를 아카이브의 출처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 실현방안으로 등장한 공동체 아카이브 담론은, 아카이브가 담은 서사의 다원성을 넘어 아카이브의 구성과 운영, 관리 주체를 확대하는 방안으로까지 연결되었다. 결국 아카이브 정의는 아카이브를 통해 사회적 평등에 기여하는 일련의 행위로 볼 수 있다(최정은 2011; 김명훈 2014; Punzalan & Caswell 2016).

아카이브 정의의 시각에서 기존의 제도 아카이브는 증거적 기록을 기반으로 국가 권력의 통치를 지원한다고 비판한다. 이는 기록관리의 탄생이 국가의 행정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것과 연결된다. Ketelaar(2001)는 근대 국가의 기록관리가 기록을 통해 국가적 사건을 다시 생성하는 과정이라고 보았다. 이는 James C. Scott이 『국가처럼 보기(Seeing Like a State)』에서, 근대 국가가 통치 효율성을 위해 통치 대상의 특수성을 제거하고 측정하기 쉬운 방식으로 단순하게 묘사, 관찰하여 기록한다고 보는 입장과 연결

된다. Derrida(1996, 17)는 이런 맥락에서 “아카이브는 단순히 과거를 수집한 것을 보여주지 않으며, 삶과 관련한 미래는 아카이브의 기술(technique)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했다. 즉, 기록관리는 국가의 통치 권력을 확고히 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다.

Caswell(2010b)은 이러한 기록학계의 객관적이고 범용적인 문서화 관행이 가져올 악의 가능성을 지적한다. 평범한 관료의 타성이 가져올 저악의 가능성을 지적한 Hannah Arendt의 ‘악의 평범성(Banal of Evil)’ 개념은, 기록관리를 기반으로 하는 관료제가 그 객관성을 빌미로 악행을 행할 가능성과 연관될 수 있다. 이에 Caswell은 기록관리에 있어 기록 생산기관, 맥락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관성적 관료주의를 넘어 선(善)으로 나아가기 위한 아키비스트의 비판적 태도를 촉구했다.

이는 전통적 기록과학의 설립 과정에서 나타난 아카이브의 존재 의의와 연결되어있다. Cook(1997)은 아키비스트가 기록학 이론 및 실천을 통해 추구해야 할 목표가 ‘세계 기억의 보존’이라고 말했다. 즉, 집단기억의 결정 과정은 기억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의 의도적 선택 또는 망각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아키비스트는 수집 기록의 보관자 또는 소유자(passive keeper or impartial custodians)에서 기록 보존의 적극적 구성자 또는 개입하는 행위자(active shaper or intervening agent)를 지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2) 아카이브 정의의 실현

(1) 제도 아카이브와 주제 아카이브의 사회정의

제도 아카이브가 구현할 수 있는 사회정의는 권력의 견제다. 이는 제도 아카이브가 기본적으로 모기관의 행정제도를 지원하기 위해 탄생한 조직 복무형 아카이브라는 특성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아카이브에서 기록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산출된 것이므로, 보다 철저하고 완전한 기록관리가 이루어

어진다면 아카이브는 모기관이 행정 권력을 수행하는 과정을 책임지고 설명할 가능성, 즉 설명책임성을 구현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논의를 통해 살펴보면, 기록은 증거적 속성을 가지면서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 또는 기능적 출처를 통해 아무리 기록을 포괄적이고 빠짐없이 수집·이관한다고 하더라도, 조직의 업무를 책임지고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에 도래할 수 있다. 복잡성이 증가한 현대적 상황에서 기록은 종이, 전자 이외 무수한 양태 속에서 막대한 수량이 생산되기 때문에, 일반 시민이 이를 다 이해하여 조직의 업무를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기록관리 이외에 그 기록을 통해 설명할 수 있는 조직의 업무를 제공하는 설명책임보고서 등의 제도가 요구된다(이영남 2014; 김익한 2018).

한편 다음에서 말하는 아카이브의 사회정의는 주제 아카이브 중 주로 진실-기억 아카이브에서 실현하는 사회정의이다.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다.

첫째, 아카이브는 소수자의 표현 도구가 될 수 있다. Jimerson(2007)은 아카이브가 정의로 다가갈 방법은 표현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진실-기억 아카이브는 사건의 진상 규명을 추구하면서 이를 통해 공식 서사에 반영되지 않은 소수자의 기억을 다층적 서사로 구성하고자 한다. Halilovich(2016)는 사회적 재난으로 부서진 삶을 살게 된 이들의 개인적, 공동체적 기억과 기록을 재생하여, 그들의 과거를 회복하고 정체성을 재확인하며, 사건 후 삶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친밀한 아카이브(intimate archive)’의 가능성을 논의했다.

둘째, 아카이브는 갈등으로 상처받은 이들을 공감하고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 20세기 이후 등장한 대량학살(genocide)과 같은 사회적 사건으로 삶에 큰 상처를 입은 개인들은 정신적 외상, 즉 트라우마(trauma)를 통해 고통을 안고 살아간다. 이러한 사건은 특히 ‘기억의 학살(memoricide)’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통한 기억과 기록의 상실은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을 가능성을 지연시킨다.¹⁵⁾ 사회적 사건을 겪은

구성원의 트라우마 극복은 이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트라우마의 치유는 개인과 사회의 역사적 상처를 드러내고, 이를 공감하면서 과거의 희생자를 애도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정은진 2017).

아카이브는 사회적 표현 공간으로서 트라우마의 기억을 드러내고, 사건의 진상이 담긴 기록을 통해 사건을 재구성하면서, 개인의 감정을 공감하는 공간이 될 수 있다. 즉, 기록을 통한 상상을 통해 사회구성원 간 연대와 친밀함이 생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Caswell(2010a)은 크메르 루즈 아카이브 논의를 통해 캄보디아의 진실과 기억을 위한 책임 있는 설명을 요구했다. Butler(2009) 또한 팔레스타인의 역사에 존재했던 수많은 폭력과 억압을 통해 팔레스타인인의 존재가 지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기억을 복구하고 재구성하기 위해 팔레스타인 아카이브의 재구축을 촉구했다. 기록은 억압적 체계를 강하게 일깨우고, 정의와 책임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동시에, 아카이브는 피해자, 생존자 및 그 가족이 기존의 사회제도를 뛰어넘어 그들을 기념하는 공간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아카이브는 갈등 이후 평화를 유지하는 도구이자 상호 이해의 공간이 될 수 있다. 물론 갈등을 막는 수단으로서 아카이브는 느리고, 장기간에 걸치고, 만져지지 않으며, 비현실적 수단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럼에도, 근대 국가 프로젝트와 국제 조직들은 아카이브를 관료적 통치, 설명책임성과 집단 기억을 위한 필수적 기관으로 설정했다. 이는 관료제 국가의 행정권력을 기록관리를 통해 견제할 수 있는 상황에서, 아카이브가 보유한 집단기억의 유지 및 공유 기능은 특히 갈등 후 화해 프로젝트의 기획에서 높은 순위에 있게 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즉, 집단기억은 평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과도기적 안보와 보안 분야 개혁 등 사후적 분쟁 영역에서 집단기억과 아카이브는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Rosén 2008).

15) George Orwell, Milan Kundera와 같은 작가들은 그들의 작품에서 지배 권력이 진실을 숨기거나 왜곡하는 상황에 대한 디스토피아적 주제들을 다룬 바 있다(Jimerson 2016, 208-274).

(2) 아카이브 정의의 상호 영향

주제 아카이브는 주로 공공 영역 바깥에 존재한다. 이들은 공공 기록관이 추구하는 객관성과 조직 지원의 의무에서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기존의 출처주의, 원질서 존중 또는 기록가치론과 같은 기존의 기록학 분류·평가론을 바로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관리의 자율성을 수반하지만, 공공 기록관리의 방법론이 가진 절차적 체계성과 같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때 주제 아카이브에서는 ‘기록의 공동체(community of records)’ 모델의 적용을 검토해볼 만하다. Bastian(2003)이 처음 소개한 이 개념은,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U.S. Virgin Island)가 19세기 이후 차례로 덴마크와 미국 식민지가 되면서 섬의 주요 기록이 식민당국, 즉 덴마크와 미국의 국가 아카이브로 이전되는 상황에서 비롯된다. 식민 이후에 아일랜드의 원주민들은 기록 관리의 통제권을 갖지 못했다. 이는 곧 기록의 상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역사 기록을 찾으려 해외로 가야한다는 건, 곧 역사 자료 자체의 손실을 의미했다. 또한 기록 존재의 무지, 아키비스트의 침묵, 기록에 쓰인 언어나 용어의 차이 등도 역시 원주민이 자국의 기록에 접근하는 것을 막았다. 식민지 상황에서 피식민지인들은 역사의 객체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아일랜드의 원주민들은 자체적으로 자신의 역사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고 관리하기 시작했다. 기록의 공동체는 이렇듯 사회 모든 계층이 기록 작성에 참여하며, 전체 공동체는 기록의 큰 출처가 되는 개념을 말한다(Ketelaar 2005). 여러 단계의 창조의 과정으로부터 출발한 기록의 공동체는, 개인 생산자로부터 시작하지만, 생산자는 전체 사회로 확장될 수 있다. 이제 공동체는 행동과 기록의 관계로 구성되어있고, 기록과 행동은 서로를 반영하는 거울을 만드는 행위가 된다. 기록의 공동체는 다층적 행위로부터 기인한 모든 형태의 기록과 공동체의 제도 간 상호작용으로 상상될 수 있다. 결국, ‘기억의 공동체’가 곧 ‘아카이브의 공동체’인 것이며, 곧,

개인 기록은 전체 공동체 기록이 된다.

원주민의 아카이브 상실과 회복 과정을 담은 이 이야기를 통해, Bastian은 기록의 분류·평가가 생산자, 관리자뿐 아니라 기록을 공동 소유하고 있는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면서 만들어갈 수 있다는 함의를 보여준다. 즉, 기록의 소유권을 정부의 법적 권한을 넘어 공동체의 소유로 확장하는 상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사회의 모든 기록은 동등한 가치를 지니게 된다. 이를 통해, 원주민들은 기록 관리 과정의 주요 대상(객체)이자 주체가 되었고, 기록의 공동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었다. 물리적 기록의 보관권과 관리 책임의 공유를 통해, 한 집단의 권리는 다른 집단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게 된 것이다.

이후 Bastian(2009)은 카리브해 축제 아카이브 사례를 통해, 아카이빙에 있어서 맥락의 포괄적 이해를 강조했다. 이때 그가 제안한 풍(fonds) 개념은 기존 아카이브에서의 물리적 분류로서의 실체가 아니다. 그는 풍을 기록의 기능·활동·형태·이용 등에 기초하여 생산, 축적된 기록 시리즈를 자연적으로 통합하는 유기적 과정을 반영하는 개념적 ‘전체’이자, 공동체의 사회적 시선을 통해 재구성되는 아카이브로 상정했다(Josias 2011).

이런 맥락에서 아카이브의 관리자로서 아키비스트의 역할도 새롭게 재구성된다. Cook & Schwartz(2002)는 아키비스트라는 ‘배우’가 과거의 관행을 반복하고 있지만, 오늘날 대본·무대·청중이 변했으므로 그 역할도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런 맥락에서, McIntosh(1998)는 ‘저자로서의 아키비스트’ 개념을 제시했다. 즉, 아키비스트는 과거를 이해하기 위해 아카이브가 보유한 1차 기록의 구성과 맥락, 그리고 이를 활용하여 재구성한 역사적 서술, 즉 2차 기록을 모두 이해해야 한다. 이때 아키비스트는 1차 기록의 생성 시 여러 방면에서 개입한다. 이들은 기록 생산자에게 기록 생산과 관련한 조언을 하고, 기록을 그 자리에서 직접 수집하거나, 또는 기록을 직접 생산하면서, 기록의 재창조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아키비스트는 기억 생산 드라마의 가장 중요한 연극자가 된다는 것이다.

한편 비제도 아카이브는 제도 아카이브에 비해 기억 담론 적용 등을 통해 새로운 관리 방법론을 적용하기 쉬운 이점이 있다. 아카이브는 기본적으로 영리적 목적을 가지지 않고, 특히 비제도 아카이브는 많은 경우 재정적 기반이 튼튼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우며, 관리 체계와 시스템을 운용하기도 쉽지 않다. 이에 제도와 비제도 아카이브, 나아가 박물관, 도서관 등 기억기관 간의 네트워크 형성 또는 조사·구술·전시·DB 구축·연구 등 영역의 상호 협력을 통해, 집단기억의 사회적 구축을 상정할 수 있다. 또한 제도 아카이브는 비제도 아카이브에게 재정적, 방법론적 지원을 통해 이들이 가진 아카이브의 주제적 다양성을 제고할 수 있다(김익한 2018).

(3) 사회 정의적 기록관리

아카이브는 그 자체가 정의적 실천을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다(Harris 2014). 아카이브는 수많은 이들의 집단기억과 기록을 통해서 진실에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서로에게 이해의 기반을 제공한다. 하지만 기록을 통한 사회 정의의 실제적 실현의 판단이 이루어지는 곳은 현대 사회에서 재판정이다. 아카이브는 재판정 앞에 서서, 간접적으로 사회 정의를 지원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제도와 주제를 막론하고, 아카이브가 기록관리를 통해 이룰 수 있는 궁극적인 사회 정의는 무엇일까? 답은 세계를 이해하는 정보의 무한한 제공일 수 있다. 특정 주제나 조직에 관한 전문적인 정보와, 시민들의 삶 속에서 구성된 정보가 모두 아카이브에 있다. 사람들은 아카이브를 통해 정보를 교류한다. 아카이브에서 정보를 획득한 사람들은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표현을 창조해낸다. 즉, 아카이브는 문화생산의 기반인 것이다. 따라서 아카이브에서는 이용과 접근성을 제고하는 각종 검색도구가 요구된다. 기록과 아카이브가 기억의 소통을 가능케 하는 시금석이고, 사회 안에

서 그 기억들이 공유된다면, 그 기억과 기록들은 표현·증재·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Miller 2006, 122).

5. 맺음말

이 글에서 우리는 지난 30여 년간 서구 기록학계에서 논의되어온 기억 담론의 지형을 검토하고, 그 서사를 재구성하여, 기억의 시각에서 기록, 기록관리, 아카이브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기존 기록, 기록관리, 아카이브가 ‘증거로서의 기록’이라는 이론적 기반에서 논의되었으며, 이것이 기억담론의 입장에서 충분히 의심해볼만한 여지가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기억을 고려한 기록관리의 방안이, 오늘날 늘어나는 아카이브의 역할과 기능을 보다 명확히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이 됨을 논의했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서구 기록담론 중 1980년대 이후 다수 인용되었거나 중요한 논의를 제시했다고 인정받는 195편의 연구논문을 선별하고, 이 중 55편의 논문을 집중 분석하여, 연구담론 전체의 흐름을 재구성했다.

이때 연구 대상으로 삼은 영어권 주요 4개 학술지 이외에도 기억 담론에 논의가 진행되었고, 기록학계 외 철학, 역사학, 사회학 등에서도 기억 개념을 활용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이들을 포괄하여 살펴보지 못하였다. 기록학계의 학제적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만큼, 더 넓은 영역의 담론적 논의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차후의 과제라 할 수 있다. 또한 기억 담론을 통해 기록관리의 여러 개념을 이론적으로만 살펴본 만큼, 실제 기록관리나 아카이브 현장에서 그 개념이 맞지 않거나 충돌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의미에 대한 차이와 연속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현실 세계에서 기록의 증거와 기억, 제도와 주제 아카이브와 같은 개념은 뒤섞여있다. 하지만 이 글은 이론적 논의인 만큼, 각 개념들을 모델링을 통해 무리해서라도 구분하여 사고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이는 특히 공공-

제도 중심의 아카이브와 기록관리를 주로 사고하는 기록학계가, 기록학을 접하지 않고 아카이브에 참여하는 시민들과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논의는 서로 다른 기록관리의 목표를 지향하는 아카이브가 존재하고, 각각에 맞는 사회정의를 요구되는 상황에서, 향후 아카이브의 실천적 지향점을 설정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 담긴 기억과 기록에 대한 논쟁적인 질문을 통해, 기록공동체 내에서 새로운 기록관리의 방향과 방법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가 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김명훈. 2009. 『전자기록 평가론』. 서울 : 신진리탐구.
- 김명훈. 2014. 기억과 기록 : 사회적 기억 구축을 위한 기록학의 역할. 『기록학연구』, 42, 3-35.
- 김상래. 2015. 『프로젝트 성패를 결정짓는 데이터 모델링 이야기』. 서울 : 한빛미디어.
- 김연철, 이준석. 2016. 행위자 : 연결망 이론(ANT)과 사변적 실재론(SR)의 접점 : '해석적 유연성' 개념으로 본 '책임있는 연구와 혁신'. 『사회와이론』, 28, 105-152.
- 김영범. 1999. 알박스(Maurice Halbwachs)의 기억사회학 연구. 『사회과학연구』, 6(3), 557-594.
- 김익한. 2003. DIRKS-Manual의 실용적 적용. 『기록학연구』, 8, 212-267.
- 김익한. 2018. 왜 다시 기록관리 혁신인가? : 소통, 기술, 협치를 향해. 『기록학연구』, 55, 165-208.
- 김재인. 2013. 질 들뢰즈의 존재론 새로 읽기. 철학아카데미 (편). 『처음 읽는 프랑스 현대철학 : 사르트르부터 바디우까지, 우리 눈으로 그린 철학 지도』, 275-306. 파주 : 동녘.
- 남미숙. 2017. 아키비스트의 역할을 중심으로 본 사회적 기억.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대학원 영상문화학과.
- 노명환. 2011. 특집 : 서양역사 속의 공공성과 공론장 : 공론장으로서 기록보존소의 역할 : 그 역사와 현황, 패러다임 변화와 미래 발전방향. 『서양사론』, 110, 97-121.
- 박영욱. 2009. 『데리다&들뢰즈 : 의미와 무의미의 경계에서』. 서울 : 김영사.
- 박지애. 2015. 디지털기록유산 평가 수집 모형에 관한 연구 : 캐나다 'Whole-of-Society' 접근법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기록관리전공.

- 설문원. 2018. 공공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기록평가제도 재설계. 『기록학연구』, 55, 5-38.
- 신동희, 김유승. 2016. 기억을 위한 아키비스트 : 기록과 기억의 이론적 고찰.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6(1), 41-59.
- 원종관. 2008. 레코드 컨티뉴엄의 속성을 통해 본 증거와 기억의 조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학과.
- 윤은하, 김유승. 2016. 노근리 사건의 사회적 기억과 기록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6(2), 57-79.
- 이경래, 이광석. 2017. 동시대 '대항기억'의 기록화 : 용산참사 사례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53, 45-77.
- 이승억. 2001. 한국 공공분야 '기록보유(recordkeeping)' 체제 전망 : '기록물분류기준표'의 제도적 의의와 특성. 『기록학연구』, 4, 31-62.
- 이승억. 2013. 경계 밖의 수용 : 보존기록학과 포스트모더니즘. 『기록학연구』, 38, 189-223.
- 이승억. 2018. 기록의 평가선별 : 영구 보존할 기록을 어떻게 선별할 것인가? 한국기록관리학회(편). 『기록관리의 이론과 실제』, 175-216. 서울 : 조은글터.
- 이영남. 2014. 기록의 전회 : 〈포스트 1999〉를 전망하며 (2). 『기록학연구』, 40, 225-277.
- 임지훈, 오효정, 김수정. 2017. 사건 아카이브의 시론적 연구. 『기록학연구』, 51, 175-208.
- 조민지. 2011. 기억의 재현과 기록 기술(archival description) 담론의 새로운 방향. 『기록학연구』, 27, 89-118.
- 조선령. 2016. 아카이브와 죽음충동 : 테리다와 정신분석학의 관점에서. 『미학예술학연구』, 49, 3-27.
- 정근식. 2013. 한국에서의 사회적 기억 연구의 궤적 : 다중적 이행과 지구사적 맥락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13(2), 347-394.
- 정문영. 2018. '5월 운동'을 통해서 본 한국에서의 이행기 정의와 아카이브. 〈ACC 전문가 학술교류 : 동시대 예술에서의 기억과 기록〉 발표문.
- 정은진. 2017. 치유로서의 기록관리 제안. 한국기록학회 제117회 월례연구발표회 〈기록학과 전문직 종사자의 정체성 모색〉 발표문.
- 정준영. 2017. 문서고적 전환(archival turn)의 의미와 일본 소재 '식민지' 아카이브의 특징 : 일본 아마구치현 소재 아카이브를 중심으로.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인문한국사업단 제30회 HK워크숍 〈일제강점기 통치 기록물과 아카이브〉 발표문.
- 진태원. 2013. 해체, 차이, 유명론으로 읽는 자크 데리다. 철학아카데미 (편). 『처음 읽는 프랑스 현대철학 : 사르트르부터 바디우까지, 우리 눈으로 그린 철학 지도』, 308-339). 파주 : 동녘.
- 최영민. 2018. 전자기록 증거능력 인정요건에 관한 기록학적 분석.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전공.

- 최정은. 2011. 사회적 기억과 구술 기록화 그리고 아키비스트. 『기록학연구』, 30, 3-55.
- 한국기록관리학회. 2018. 『기록관리의 이론과 실제』. 서울 : 조은글터.
- The Archival Education and Research Institute(AERI), Pluralizing the Archival Curriculum Group(PACG). 2011. Educating for the Archival Multiverse. *American Archivist*, 74(1), 69-101.
- Assmann, Aleida. 2009. *Erinnerungsraume : Formen und Wandlungen des kulturellen Gedachtnisses* : Verlag C.H.Beck oHG, München. (변학수, 채연숙 역. 2011. 『기억의 공간 : 문화적 기억의 형식과 변천』. 서울 : 그린비).
- Bastian, Jeannette A. 2003. *Owning Memory : How a Carribean Community Lost Its Archives and Found Its History*. Westport, Conn : Library Unlimited.
- Bastian, Jeannette A. 2009a. Flowers for Homestead : A Cast Study in Archives and Collective Memory. *American Archivist*, 72(1), 113-132.
- Bastian, Jeannette, A. 2009b. 'Play mas' : Carnival in the Archives and the Archives in the Carnival : Records and Community identity in the US Virgin Islands. *Archival Science*, 9(1-2), 113-125.
- Brothman, Brien. 2001. The Past that Archives Keep : Memory, History and the Preservation of Archival Records. *Archivaria*, 51, 48-80.
- Butler, Beverley. 2009. 'Othering' the Archive : From Exile to Inclusion and Heritage Dignity : The Case of Palestine Archival Memory. *Archival Science*, 13(2-3), 57-69.
- Caswell, Michelle. 2010a. Khmer Rouge Archives : Accountability, Truth, and Memory in Cambodia. *Archival Science*, 10(1), 25-44.
- Caswell, Michelle. 2010b. Hannah Arendt's World : Bureaucracy, Documentation, and Banal Evil. *Archivaria*, 70, 1-25.
- Cook, Terry. 1997. What is Past is Prologue : A History of Archival Ideas Since 1898, and the Future Paradigm Shift. *Archivaria*, 43, 17-63.
- Cook, Terry. 2001. Archival Science and Postmodernism : New Formulations for Old Concepts. *Archival Science*, 1(1), 3-24.
- Cook, Terry. & Schwartz, Joan M. 2002. Archives, Records and Power : From (Postmodernism) Theory to (Archival) Performance. *Archival Science*, 2(3-4), 171-185.
- Derrida, Jacques. 1996. *Archives Fever : A Freudian Impression*, Trans. Prenowitz, Eric.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Dirks, John M. 2004. Accountability, History, and Archives : Conflicting Priorities of Synthesized Strands. *Archivaria*, 57, 29-50.

- Duff, Wendy M., Flinn, Andrew, Suurtamm, Karen, E. & Wallace, David A. 2009. Social Justice Impact of Archives : A Preliminary Investigation. *Archival Science*, 13(4), 317-348.
- Duranti, Luciana. 1994. The Concept of Appraisal and Archival Theory. *American Archivist*, 57(2), 328-344.
- Foote, Kenneth E. 1990. To Remember and Forget : Archives, Memory, and Culture. *American Archivist*, 53(3), 378-392.
- Furner, Jonathan. 2004. Conceptual Analysis : A Method for Understanding Information as Evidence, and Evidence as Information. *Archival Science*, 4(3-4), 233-265.
- Gilliland, Anne. 2017. Archival and Recordkeeping Tradition in the Multiverse and Their Importance for Researching Situations and Situating Research. In : *Research in the Archival Multiverse*. Gilliland, Anne, McKemish, Sue, Lau, Andrew J. ed. Clayton, VIC : Monash University Publishing.
- Halbwachs, Maurice. 1992. *On Collective Memory*. Trans and ed. Lewis A. Coser.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alilovich, Hariz. 2016. Re-imaging and Re-imagining the Past After 'Memoricide' : Intimate Archives Inscribed Memories of the Missing. *Archival Science*, 16(1), 77-92.
- Harris, Verne. 1997. Claiming Less Delivering More : A Critique of Positivist Formulation on Archives in South Africa. *Archivaria*, 44, 132-141.
- Harris, Verne. 2002. The Archival Sliver : Power, Memory, and Archives in South Africa. *Archival Science*, 2(1-2), 63-86.
- Harris, Verne. 2014. Antonym of Our Remembering. *Archival Science*, 14(3-4), 215-229.
- Hedstrom, Margaret. 2002. Archives, Memory, and Interfaces With the Past. *Archival Science*, 2(1-2), 21-43.
- Hedstrom, Margaret. 2010. Archives and Collective Memory : More Than a Metaphor, Less Than a Analogy. In : *Current of Archival Thinking*. Eastwood, Terry, MacNeil, Heather. ed. Santa Barbara, Calif. : Libraries Unlimited.
- ISO 15489-1 : 2016.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Records Management—Part 1 : Concepts and Principles.
- ISO 23081-1 : 2017.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Records Management Processes—Metadata for Records - Part 1 : Principle.
- Jacobson, Trond, Punzalan, Ricardo L, Hedstrom, Margaret. 2013. Invoking "Collective Memory" : Mapping the Emergence of a Concept in Archival Science. *Archival Science*, 13(2-3), 217-251.

- Jimerson, Randal C. 2007. Archives For All : Professional Responsibility and Social Justice. *American Archivist*, 70(2), 252-281.
- Jimerson, Randal C. 2009. *Archives Power : Memory, Accountability, and Social Justice*.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역. 2016. 『기록의 힘 : 기억, 설명책임성, 사회정의』. 서울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Josias, Anthea. 2011. Toward an Understanding of Archives as a Feature of Collective Memory. *Archival Science*, 11(1-2), 95-112.
- Lowenthal, David. 1985. *The Past is Foreign Count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김종원, 한명숙 역. 2006. 『과거는 낯선 나라다』. 서울 : 개마고원).
- Ketelaar, Eric. 2001. Tacit Narratives : The Meaning of Archives. *Archival Science*, 1(2), 131-141.
- Ketelaar, Eric. 2005. Sharing : Collected Memories in Communities of Records. *Archives and Manuscripts*, 33(1), 44-61.
- Ketelaar, Eric. 2008. Archives as Spaces of Memory. *Journal of Society of Archivist*, 29(1), 9-27.
- Ketelaar, Eric. 2012. Cultivating Archives : Meaning and Identities. *Archival Science*, 12(1), 19-33.
- MacNeil, Heather. 2000. *Trusting Records : Legal, Historical, and Diplomatic Perspective*. Dordrecht; Boston, Mass. : Kluwer Academic Publishers. Quoted in Pearce-Moses, Richard. 2005. *A Glossary of Archival and Records Terminology*. 152. Chicago : The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 Mcintosh, Robert. 1998. The Great War, Archives, and Modern Memory. *Archivaria*, 46, 1-31.
- McKemmish, Sue, & Gilliland, Anne. 2013. Archival and Recordkeeping Research : Past, Present and Future. In : *Research Methods : Information, Systems and Contexts*. Williamson, Kristy, Johanson, Graeme, ed. Prahran, VIC : Tilde Publishing and Distribution.
- McKemmish, S. & Piggott, M. 2013. Toward the Archival Multiverse : Challenging the Binary Opposition of the Personal and Corporate Archive in Modern Archival Theory and Practice. *Archivaria*, 76, 111-144.
- Meehan, Jennifer. 2009. The Archival Nexus : Rethinking the Interplay of Archival Ideas About the Nature, Value and Use of Records. *Archival Science*, 9(3-4), 157-164.
- Millar, Laura. 2006. Touchstone :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Memory and Archives. *Archivaria*, 61, 105-126.

- Nannelli, Elizabeth. 2009. Memory, Records, History : The Records of the Commission for Reception, Truth, and Reconciliations in Tomor-Leste. *Archival Science*, 9(1-2), 29-41.
- Nearsmith, Tom. 2002. Seeing Archives : Postmodernism and the Changing Interlectual Place of Archives. *American Archivist*, 65(1), 24-41.
- O'Toole, James. 1993. The Symbolic Significance of Archives. *American Archivist*, 56(2), 234-255.
- Orwell, George. 1949. *Nineteen Eighty Four*. London : Secker & Warburg. (정의성 역. 2003. 『1984』. 서울 : 민음사).
- Pearce-Moses, Richard. 2005. *A Glossary of Archival and Records Terminology*. Chicago : The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 Punzalan, Richardo L. 2009. 'All the Things We Cannot Articulate' : Colonial Leprosy Archives and Community Commemoration. In : *Community Archives : The Shaping Memory*. Basitan, Jeannette A. & Alexander, Ben, ed. London : Facet Publishing.
- Punzalan, Richardo L., Caswell, Michelle. 2016. Critical Directions for Archival Approaches to Social Justice. *The Library Quarterly*, 86(1), 25-42.
- Rosén, Frederik. 2008. Off The Record : Outsourcing Security and State Building to Private Firms and the Question of Record Keeping, Archives, and Collective Memory. *Archival Science*, 8(1), 1-14.
- Schellenberg, Theodore R. 1956. *Modern Archives : Principles and Techniques*.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이원영 역. 2002. 『현대기록학개론』. 서울 : 진리탐구).
- Schwartz, Joan M., Cook, Terry. 2002. Archives, Records and Power : The Making of Modern Memory. *Archival Science*, 2(1-2), 1-19.
- Scott, Charles E. 2004. The Appearance of Public Memory. In : Phillips, Kendall R. ed. *Framing Public Memory*. Tuscaloosa : The University of Alabama Press. Quoted in 정근식. 2013. 한국에서의 사회적 기억 연구의 궤적 : 다중적 이행과 지구사적 맥락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13(2), 347-394.
- Scott, James C. 1998. *Seeing Like a State : How Certain Schemes to Improve the Human Condition Have Failed*. 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전상인 역. 2010. 『국가처럼 보기 : 왜 국가는 계획에 실패하는가』. 서울 : 에코리브로).
- Taylor, Hugh A. 1982. The Collective Memory : Archives and Libraries as Heritage. *Archivaria*, 15, 118-130.
- Taylor, Hugh A. 1995. "Heritage" Revisited : Documents as Artifacts in the Context of Museums and Material Culture. *Archivaria*, 40, 8-20.

〈참고 사이트〉

네이버 기관단체사전 : 종합. 2018. 검색일자 : 2018.11.30.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647053&cid=43124&categoryId=43124>

21세기 정치학대사전. 2018. 검색일자 : 2018.12.30.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728503&cid=42140&categoryId=42140>